



[기획 탐방1] 청년들, 흙에서 꿈을 일궈 미래를 만든다!

- 한국농어촌공사 청년창업농 지원제도 정책 시행 -

김유인 | 기사입력 : 2025/07/23 [12:41:00]



▲ 2025년 청년농협의체회의에 참석한 청년창업농들이 영농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청년농 지원제도에 대한 보완점과 신규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약 68세로 전체 인구 평균(약 45세)보다 훨씬 높다.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과 정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창업농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청년창업농 지원제도의 핵심 - 농지은행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농지 매입과 임차가 가능하다. 특히 자본과 정보가 빈약하여 우량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공사 비축농지 임대, 은퇴농 등의 농지 매매 및 임대차, 장기 임대 후 매도 방식의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어 청년창업농들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 농업인, 전업 또는 은퇴농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업인에게 타작물 재배 조건으로 임대
- ▲농지매매 사업 : 비농업인, 전업 또는 은퇴농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저금리 조건으로 매도
- ▲임차임대 사업 : 은퇴농, 상속·유증 또는 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임차하여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선임대후매도 사업 : 청년농이 자부담 없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을 조건으로 농지를 임대, 임대기간(최장 30년) 동안 임대료와 원리금을 납부한 후 매입



-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를 방문하여 현재 조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지은행사업에 대해 영암군 청년창업농이 민 경 과장(좌측)에게 상담받고 있다.

특히 공사가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해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장기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확대되고 있어 청년농업인의 미래지향적 농업경영을 지원한다.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을 위해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초기 자본 부담 덜고 청년농 안정적 영농 지원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본 부족과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영농 진입에 난항을 겪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토지 구매나 시설 투자에 드는 막대한 초기 비용으로 인해 꿈을 접는 경우가 많다. 특히, "땅을 구한다고 해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 등, 영농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이러한 청년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비축한 농지에 최신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한 후, 이를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은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젊고 역량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접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농업 유입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작년 상반기와 올해 초 준공된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에 위치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2개 동(총 2,405.14㎡ 약730평).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에 영암군이 건축한 초기사업 모델의 스마트팜으로 왼쪽 시설에서는 딸기를, 오른쪽 시설에서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농어촌공사는 2024년부터 청년농업인,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청년농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사례 : 기존에는 벼 이외 작물만 경작할 수 있었던 임대 농지에 가루쌀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어 앞으로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창업농 지원제도의 사회적 의미와 효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지원제도는 청년 유입을 통해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젊은 농부들의 정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안정적 영농 정착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농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건실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기술 도입과 경영혁신을 주도할 유능한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청년창업농 지원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이 농촌에 뿌리내리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토대와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다. 지금이야말로 청년이 농촌에서 꿈을 일궈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에 틀림없다.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영암군민일보 이 기사 주소 : <http://www.xn--6e0bx9yjva78vyyac9d.kr/5285>
